모든 것이 고정된 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

☞ 19면에서 계속

이 밝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밝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스스로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다 말을 할 겁니다.

생활 속에서의 반야심경

질문 우리가 매 법회 때마다 반야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치를 우리 생활 속에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답변 그것을 간단히 말한다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모든 것이 고정된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세상에 물질로서 나는 건 영원한 게 아니라 모두 부서지고 변하고 죽고 살고, 고정됨이 없이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상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다음에 마음을 내는 것, 그다음에 육체가 움죽거리는 것, 그 삼합이 한데 합쳐서, 내면세계와 모든 바깥의 외면세계가 전부 한데 합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나부터, 내 주인공부터 깊이 모든 것을, 껍데기 자기가 아닌 영원한 자기를 지키고 그거를 믿어야 하고 찾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 몸뚱이는 자기 마음이 끌고 다니는 거니까 자기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자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생각이 없다면 말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핵이라는 자체가 바로 주인이다 하면, 생각을 내면 벌써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다,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공이 없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핵과 공이 같이 이렇게 프로펠러 돌아가듯 인생이 그렇게 고정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찰나찰나 우리가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끌고 다니는 알맹이가 생각도 하게 하고 말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그 장본인 자체가 '주인공이다'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없다면 이 세상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터 믿고 자기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로부터 무의 세계, 유의 세계 포함해서 같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일까요

질문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내 것을 더 얻기 위해 서로 투쟁하고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산다는 인식으로 아웅다웅 힘겹게 살아나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이기적인 것일까요?

답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의 의식으로서 산다면 물질세계의 노예고, 그것은 끝 간 데 없는 길을 고통스럽게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으면서 죽어야 열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이 도리를 알고 죽어야 열반이지, 만약에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르고 죽는다면 그건 그냥 그대로, 그 고통 속에서 죽는다 산다도 없이 끝없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깨치고 본다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악으로 수없이 나가고 선으로 나가도 수없이 나갑니다.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가 문제죠. 이게 또 묘한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다스리는 마음이 없다면, 바로 맘대로 '내가 저걸 꼭 훔쳐 와야겠다. 그래서 남이야 살건 말건 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러면 안의 의식들은 그것이 나쁘고 좋고를 모르기 때문에 다 따라 줍니다. 그 마음이 서면 악도 그만큼 있고 또는 선도 그만큼 있습니다. 선이 더 많으냐 악이 더 많으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이 인간으로서 살지만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즐겁게 선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으로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먹는다면 그건 독이 될 것이고 약초가 먹는다면 약초가 돼서 인간을 살립니다. 칼도 칼 나름입니다. 의사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지마는 강도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 모두가 상대성 원리입니다. 부처도 중생도 풀 한 포기도 다 내 소유로서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유가 돼야만이, 그때 가서는 나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오고, 바로 그때에 부처님이 뚜렷하고 중생이 뚜렷하고, 하는 일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터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깥에 있는 지렁이를 볼 때 보기 싫고 징그럽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속에는 똥통도 들어 있고 구더기도 있고, 또는 진드기도 있고 거위도 있고, 촌충도 있고 벼룩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왜 그렇게 내 몸에 들어 있고 왜 그것이 바로 나였던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생긴 이래 역사를 봐도 미생물의 시대가 있었고, 곤충의 시대가 있었고, 또 그 뒤에는 공룡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기 전에 그렇게 미리미리들 진화돼서 올라오기 위한 그 수련이, 그렇게 수많은 모습을 바꿔 가면서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인간까지 온 것이 그게 바로 정신 수행입니다. 자연적으로 지수화풍이 바탕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모두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쫓고 쫓기면서, 마음이 그렇게 해서 진화돼 가지고 모습을 바꾸고 바꾸고 한 게 인간까지 올라왔다 합니다. 누가 그것을 말해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나, 참나의 속에 다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인간까지 무수한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끝없는 길입니다.

그럼 인간이 되어 가지고도 또 짐승으로 돼야 되겠습니까? 또는 독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살리고 온통 부서지게 하고 남을 해롭게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틀림없이 미래에 올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한 일은 현실을 보면 너무나 더 잘 아실 거고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 동기를 항상 지켜본다면 아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 악업 선업으로 뭉쳐 있다가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마시고, 누(累)가 아니 되는 거는 하시고 누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한생각에 밝아지는 도리가 있으니 이 마음 도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질문 마음공부를 좀 하는 것 같은데도 자꾸만 분별하는 의식들이 올라옵니다.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공부 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이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답변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 생활 속에서 수없이 나오는 것에 끄달리지 말고 속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지배하는 지배인은 부처니까 그저 속지 말라.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그냥 거기서 모두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 생각을 내는 그 마음이 당당하게 '나는 속지 않아, 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하고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할 때 그 앞서 입력된, 과거에 입력된 그 인과응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냥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현재에 입력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래서 팔자운명도 붙지 않는 자리요, 병고도 붙지 않는 자리요, 또 우환도 붙지 않는 자리다. 그래서 '내가 공해서 없는데 어디 붙을 자리가 있겠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걸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갑니다, 지금. 돌아가니까 그게 주인이자 공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한 것을 주인공이라고 하니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안 되는 것이 거기서 나올 때는 '되게 할 수도 있는 것도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믿고 거기 맡기고 또 잘돼서 나오는 건 '아이구, 감사하구나!' 이렇게 또 감사하게 맡겨 놓고, 또 정히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는 '아! 안 되는 것도 법이려니 되게 굴리는 것도 거기서 굴려서 나올 거야.' 하고 믿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홀연히 내가 밝아지거든요. 앞서의 카세트의 노래란 게 없어지고 운명 팔자 이런 게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고 지금 새로 넣는 것이 입력이 돼 가지고 아주 슬기롭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 편안하니 좋지, 아래 중생들 제도하니 좋지, 위 부처님 자리 한자리 하니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럭하다 보면 여러분이 밝아지고 자기를 자기가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면 둘이 아닌 도리를 또 배우느라고 자꾸자꾸 길잡이한테 물어 가면서 공부해야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한번 왔다가 "스님, 이러이러하옵니다." 그러면 "어, 당신 주인공밖에는 해결 못 해, 그거." 이럽니다, 내가. 항상 뭐, 정성 들여라 이런 게 없습니다. "어, 그거 당신 주인공밖엔 해결 못 해."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얼마 있다 와서 "아유, 스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재판이 걸려 있어도 그렇게 "그건 당신 주인공밖에 해결 못 해!" 이러거든요. 말을 여러 마디 해서 뭘 합니까? "어, 당신 주인공밖에 해결 못 해." 이럽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고 와서 정말이지 감사하다고 그럴 때 웃음이, 씽긋이 웃음이 나면서 너무나 좋은 거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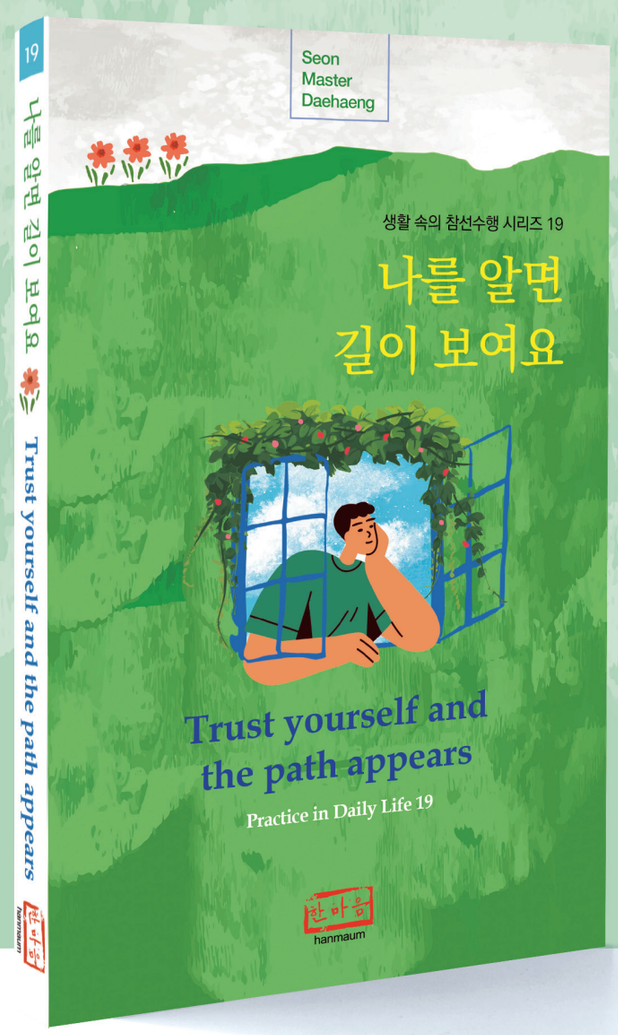
그러니까 서로 다, 상대가 좋으면 나도 좋고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고, 이것이 한 마음의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이 몸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거기다 맡기십시오. '거기서밖에 해결 못 한다.' 하고요. 자기 주인공 죽는 법은 없습니다. 영원한 거니까요.

> 모든 거를 주인공에 맡겨놓고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한다면
> 같이 밝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